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 목장교회 나눔지

4월, 마음에 새기는 말씀 -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 얼음 깨기

## 익숙함을 떠나, 약속으로 나아가다

“우리는 진흙으로 파이를 만들며 만족하는 아이와 같다. 바닷가에서 누릴 휴가를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익숙하고 작은 것에 머물며, 하나님이 주시려는 더 큰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익숙한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역시 익숙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C.S. 루이스, 『영광의 무게』 중)

## 교회행사

### 4월

- 5일 부활주일
- 11일 신중년 야유회
- 24-25일 목자 수련회

### 5월

- 1-5일 더함공동체 태국 단기선교
- 3일 어린이주일
- 10일 어버이주일
- 더가족세미나 5기 개강
- 16일 홀리빛키(어린이페스티벌)
- 23-24일 더함공동체 여름수련회
- 30일 어와나 지역 올림픽
- 31일 더가족 세미나 5기 종강

## 경배 찬양

##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의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 선교

## [홍성남 선교사]

### 우간다

- 태권도 사역을 통하여, 300명의 유단자, 30명의 사범단, 3명의 선교사가 일어나도록
- 어린이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 이 원하시는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술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도록
- 중보기도 모임을 통하여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며 그들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 대학생 중심으로 사명과 예배 캠프를 진행하는데 자신의 사명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알게되는 캠프 되도록

## 소식

### 1. 단기선교

5월 1일(금)~5일(화) 일정으로 더함공동체에서 태국 옴꼬이 예수원으로 단기선교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ks에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주세요.

### 2. 국내 의료 선교

의료선교회에서 5월 5일(화) 순창 구미중앙교회로 의료선교를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걸음들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주세요.

## 한 문장 큰 울림

“하나님은 우리가 머물기 편한 곳이 아니라, 가야 할 곳으로 부르십니다”

- 찰스 스펀전 -

[창세기 31장 13절] “나는 벤엘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 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속임수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됩니다(창세기 28장). 그리고 그곳에서 약 20년을 살며, 이번에는 오히려 “속임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라헬과 결혼하려 했지만 속아서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라반은 계속해서 야곱을 속이며 품삯을 여러 번, 성경에서는 열 번이나 바꾸었습니다(창 31:7).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개입으로 야곱의 재산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시선이 차가워졌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관계는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당시 유목 사회의 노동 계약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라반의 행동은 반복적인 계약 위반이자 착취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 역시 과거에 속임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 1\_하나님이 보셨다(12절).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다(라아)”라는 표현은 단순히 바라본다는 의미를 넘어서, “자세히 살피고 조사하다”는 뜻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상황을 그저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깊이 아시고 개입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억울함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셨다”(출 3:7)고 말씀하시며,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역사로 이어가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아시며, 반드시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눔] 내가 억울하거나 힘들었던 일 속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확신이 있나요?

## 2\_하나님은 벤엘의 약속을 기억하셨다(13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벤엘에서 주셨던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시며 “나는 벤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과거의 약속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일깨워 주시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새롭게 바뀌는 분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넘어 약속을 신실하게 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신실하심, 곧 ‘연속성’ 위에서 완성되어 갑니다.

[나눔] 내가 억울하거나 힘들었던 일 속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확신이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벤엘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라, 처음 부르심과 은혜, 그리고 결단을 다시 붙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 3\_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명령하신다(3절).

“돌아가라(슈브)”라는 동사는 단순한 이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벤엘의 하나님으로 밝히시며, 지금까지 약속을 따라 동행해 오신 분이심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머물러야 할 곳은 많은 재산을 이룬 밋단하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 ‘돌아가라’는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게 합니다.

사실 야곱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재산은 많았지만 가족 관계는 좋지 않았고, 앞날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단순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이제는 떠나야 할 때가 되었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나눔] 내 인생의 “벤엘 경험”은 언제였나요? 지금 그것을 붙들고 있나요?

## 4\_두 아내의 반응(16절)

야곱의 두 아내는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서 빼앗아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주셨다”고 고백하며, 지금까지의 모든 부가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인정합니다. 이를 통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여정은 가족 공동체 전체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말씀하시는 분”, 그리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삶의 환경이 흔들리고 관계가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지체하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란은 오랜 시간 머물며 익숙해진 곳이고, 많은 것을 이룬 자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곳이 야곱이 머물 최종적인 땅이 아니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 가나안이기 때문입니다.

[나눔] 내 가정/목장이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고 있나요?

[나눔] 이번 주 내가 실제로 순종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난 믿음 없는 이야기 / 창세기 31장 1~16절]을 통해 받은 은혜와 삶의 적용 점을 나눕니다.

함께 하나님나라를 세우기며 말씀을 비추하고 기도를 쌓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지금까지의 삶과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소서.

**기도** **꼭각 순종하는 결단** 환경과 조건을 계산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소서.

**언약의 자리로 향한 용기** 편안하고 익숙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자리로 나아갈 믿음과 용기를 주소서.